

김수아 선생님은 평소 온라인 성폭력 범죄(디지털 성범죄) 보도를 통해 어떠한 담론이 구축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담론의 형성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문제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에게도 많은 통찰을 줄 뿐 아니라 언론 현장에서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대안과 정책을 이끌어내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김수아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성찰하고 확장하여 현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라운드테이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선생님의 논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 ‘n번방 사건’을 통해 드러난 신상공개를 통한 엄벌주의에 대해서입니다. 엄벌주의에 따른 신상공개가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통해 이뤄질 필요가 있을까요? 포토라인에 세워져 가해자의 한마디를 꼭 따고자 카메라를 들이대고 마이크를 들이대는 언론의 취재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적했듯이 그러한 취재방식이 ‘가해자 서사’를 의도치 않게 양산했으며, 또한 카메라 앞에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 ‘혐오와 수치심’이 작동하는 것 외에 다른 무슨 효과가 있을까하는 고민입니다.

두 번째 고민과 질문입니다. 본 논문에서 김수아 선생님의 핵심은 ‘디지털성폭력 범죄를 젠더에 기반을 둔 폭력으로 이해하고 관련구조를 논의하는 언론의 의제설정이 적었음’을 지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n번방 사건에서 저는 청소년의 섹슈얼리티 논의와 관련된 ‘일탈계’ 관련 논의들이 어떤 방식으로 보도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여성주의적 개입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일탈계에 대한 논의는 주로 두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첫째는 ‘일탈계’를 운영한 젊은 여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논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언론의 대응, 사회적 담론은 ‘2차 가해’, ‘순수한 피해자상’을 비판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어떤 사람이고 피해 당시에 어떤 행위를 했던 당사자의 자율적인 동의와 그에 대한 존중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폭력이라고 하는 논의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미투’로 인해 여기까지는 일정 정도의 감각, 성인지 감수성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논의는 여전히 이러한 행위는 ‘위험’하다는 인식에 기반한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보호가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에 아동, 청소년이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들이었습니다. 향후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대책으로 일탈계를 단속하거나 처벌하자는 논의가 등장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들의 취약한 위치에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청소년에게 ‘보호’를 내세워 ‘권리’를 제약하는 논의는 문제적이라고 봅니다. 청소년들은 성적 욕망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가? 하면 안되는가? 이번 n번방 가해자들은 이러한 차별적 구조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용했다고 봅니다. 부모에게 알려겠다는 협박을 통해서요. 그렇다면 피해자가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욕망을 부정하지 않고도 자신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폭력의 피해에 대해 말할 수 있는 ‘환경’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러한 논의들이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

한 맥락에서,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향후 언론의 아젠다가 규제되어야 할 것이 '개인의 성적 표현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침해와 폭력'이라는 점 이외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 번째 고민입니다. 향후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대책이 일탈계를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어떤 방향성을 띠야 할까요? 위함한 것은 일탈계 자체가 아니라 일탈계가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표현하고 사회적 관계와 경제적 자원을 구하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밖에 없을 때, 이에 대해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은 불평등한 젠더위계 구조에서, 자신의 성을 매력 자본으로 삼아 자원화하는 것을 성적 주체성의 실현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신자유주의 페미니즘'이 이러한 여성 청소년들의 일탈계 양산에 기여했을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요?